


한국항만물류협회  www.kopla.or.kr	보 도 자 료		항만물류 선진화 노사관계 건전화 하역질서 안정화 협회조직 활성화
	배포일시	2023. 11. 8(수)	배포매수 : 3매
	문 의 처	안전노무실(02-928-6686) 실 장 전용호(010-2211-2609) 과 장 배대훈(010-8817-8981) 주 임 이철민(010-3492-5437)	

제1회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 시상식 성료

CJ대한통운 등 총 16명 시상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11월 8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해운신문이 주관하며 해양수산부와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운협회가 후원한 '제1회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은 안전한 항만하역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업·단체 및 근로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규정 준수의

육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대한민국 항만 안전대상' 심사위원단은 지난 10월 17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4명, 최우수상 8명, 우수상 4명 등 16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장려상 36명은 지방 항만물류협회를 통해 별도 선발하여 시상기로 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최종욱 항만운영과장,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성진 사무처장, 한국해운신문 이철원 국장 등 해운항만물류 업단체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해 축하를 더했다.

올해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영예의 대상에는 CJ대한통운(주), 부산항운노동조합 김민기 부장, HMM 남재일 책임매니저, 포스코플로우(주) 조정수 실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상패, 상금 300만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손목시계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으로 선정된 CJ대한통운은 지속적인 안전시설 투자를 통해 다수의 사업장에 약 4천여명이 넘는 근무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부산항운노동조합 김민기 부장은 노·사·정 합동 안전 캠페인, 부산항 안전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주도하는 등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HMM 남재일 책임매니저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실무위원으로 2020년 HMM에서 인도한 12척의 2만 4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항만에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기항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포스코플로우 조정수 실장은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포스코 제품

부두 관리경험을 통해 안전한 항만사업장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한국항만물류협회장상인 최우수상에는 부산신항만(주), 에이치엠 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박경일 위원장,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김재곤 부장, 인천항운노동조합 이경우 차장, 현대글로벌비스(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이완범 부문장 등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해운신문 사장상인 우수상에는 (주)선광 군산지사 허인규 부장, 항만안전연구소 오현수 소장, 경남항운노동조합 강대식 조합원,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 강신명 연락소장이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한국항만물류협회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한국해운신문 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대상 뿐 아니라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들 역시 우수한 안전 관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국내 항만 안전 제고 의욕이 더욱 고취돼 내년에는 더 많은 우수사례와 훌륭한 수상자들이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